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3박 4일의 여정

추 정 옥 _ 경남 함안 새롭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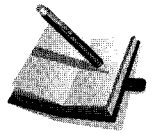


제2기 여성낙농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이 8월 31일부터 3박 4일 동안 충주 리조트에서 있었다. 사실 이번 교육은 나에게서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요즈음 사람들은 먹을 것에서부터 입고 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웰빙' 시대이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일반 우유와는 차별된 고품격의 우유를 생산하는 길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하고 친환경 HACCP 인증을 받고자하였다. 그 준비 과정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협회에서 목장경영 전반에 걸쳐 거래장, 부기, 경영장부기록 등 실질적인 교육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교육생들은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

다. 경영분석, 자본제, 자산, 부기, 차변, 대변..... 처음에는 듣기에도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나이 때문인지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지 시험지를 받아들면 어찌 그리도 머리는 백지 상태가 되는지.....

교수님의 '시험 본다.'는 한 마디에 '으아악!'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유럽 연수라는 그럴싸한 포상(?)이 있었기에 다들 최선을 다했다. 교육 내내 행여라도 힘들어할까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자투리 시간에 보여주시는 재미있는 동영상은 우리를 포복절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났다. 실질적인 차변 대변을 대입해보니 내 목장의 손익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뜬구름 잡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목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어려웠지만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어 점점 정겹게 다가오고 나는 경쟁력 있는 우리 낙농의 미래를 보았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신감이 웅달샘처럼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FTA, DDA, 송아지값 하락, 사료값 폭등 등등 원유 수급 측면이 아니더라도 낙농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힘들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이 답답하다고 정부만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지가.....

이번 교육은 목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내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제는 힘을 내어 정말 눈곱만큼의 환상도 용납되지 않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주먹구구가 아닌 기록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잡고 실질적인 두 배의 이익을 창출해 보고 싶다.

끝으로 우리 교육생들을 위해 애쓰고 힘써주신 지역 아카데미 연구원 여러분, 열강해 주신 나현채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육을 같이 한 39명의 동기 교육생 여러분, 이번 교육이 앞날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저처럼 여러분의 목장에도 희망찬 미래가 보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